
문서번호 : 14-02-국제연대-02
수 신 : 제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담당 이동화 간사, 522-7284)
제 목 : [취재협조요청] 2008 미얀마 헌법개정에 대한 국제심포지엄과 한국NGO 간담회 개최
전송일자 : 2014년 02월 18일
전송매수 : 첨부포함 총 7매

취재협조요청

2008 미얀마 헌법 개정에 대한 국제심포지엄과 한국 NGO와의 간담회 개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변호사협회와 공익법재단 공감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08미얀마헌법 개정에 대한 국제심포지엄> 과 <한국 NGO와의 간담회> 를 2월 19일부터 20일 양일간에 걸쳐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과 민주화운동기념회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법률가들과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미얀마 현지 법률가들을 모시고 2008미얀마헌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3. 이번 행사를 위해 미얀마 현지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노력해온 미얀마변호사네트워크(Myanmar Lawyers' Network)소속 변호사들이 초청되었는데, 그 중 우찌민(U Kye Myint)변호사는 오랫동안 미얀마군사정권에 저항하며 수차례 수감생활을 하였고, 현재 정치인 수감자와 인권운동의 피해자들의 변론활동을 주로 하는 미얀마변호사네트워크의 대표변호사입니다.
4. 이번 행사의 주요 주제인 2008미얀마헌법은 미얀마 군부독재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며 미얀마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헌법으로 국제적으로 많은 비판과 개정요청을 받고 있는 헌법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2015년 대선을 앞두고 현재 미얀마 의회 내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최근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미얀마 민주주의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 여사가 국제적으로 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2008미얀마헌법의 개정은 공론화 되고 있습니다.

5. 이런 상황에서 수년간 미얀마 헌법을 연구하며 민주주의 증진 활동을 이어 온 국내 법률가와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미얀마 현지 법률가들을 모시고,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2008미얀마 헌법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정의견을 도출하는 것은 미얀마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자료 참조 및 담당자에게 연락 주십시오.

6. 감사합니다.

첨부 1. 국제심포지엄, 간담회 기획안

첨부 2. 미얀마 초청 법률가 약력


2014. 2.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장영석(직인생략)

첨부 1. 행사 기획안

2008 미얀마 헌법 개정에 대한 국제심포지엄

- 일시: 2014. 2. 19.(수) 13:30~17:30
- 장소: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주최:  대한변호사협회

주관:  공감
공익인권법재단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 배경과 취지

· 미얀마(버마)는 1962년 군사 쿠데타, 1988년 민주화 항쟁(8888항쟁), 1990년 총선 무효 선언 후 과도군사 정부 구성 등 한국과 유사한 역사를 경험한 국가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민주주의가 자리 잡아 가고 있는 반면에 미얀마는 여전히 민주화 운동 탄압, 집회, 결사, 표현, 정보, 이동의 자유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고, 인터넷 외부접속 제한, 일반인 대학출입 규제, 불교 외 다른 종교 활동 제약, 외국기자의 사전 동의 없는 방문과 취재 불허 등과 같이 민주화운동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활동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규제와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군부의 석유, 천연가스 인상에 반대하여 승려 등 수많은 미얀마 국민들이 시위를 하였는데, 그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시위를 취재하는 외국 사진기자가 사망하기도 하였다. 또한 종교와 인종에 기인한 차별이 심각하여 소수민족 등에 대한 강제노역, 폭행, 강간 등도 심각한 상황이며, 미얀마는 한국 내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인권 침해의 심각성은 대한민국 법원도 '난민' 인정 판례를 통해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 미얀마군사정권은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2008년 5월 12일과 24일 두 차례 실시하여 통과시켰다. 개정된 헌법은 상·하원의회 의석의 25%를 군부에 우선 할당하고 군최고 지휘자가 군대를 독립적으로 지휘하며 외국인국적의 남편과 자녀가 있을 경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군부의 장기집권을 위한 비민주적인 헌법으로 미얀마 내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지속적인 개정요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 반면, 최근 외국기업들의 미얀마 투자 유치, 경제적 개방정책과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NLD 정당의 원내 입성, 아웅산 수지여사의 가택연금 해제 등 미얀마 내부에서 정치적 유화국면과 경제적 변화가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

· 미얀마 헌법 관련하여서는 제 1야당인 NLD 정당의 리더인 아웅산 수지여사가 대외적으로 헌법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미얀마 집권여당인 통합단결발전당(USDP)도 2015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전 헌법 개정에 합의하여 의회 내 개정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 군사정권의 억압에 저항하고 민주화 투쟁의 결실로 1987년에 헌법을 개정한 한국은 미얀마에게 중요한 시사점이자 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변호사들이 “2008. 미얀마 헌법”에 대해 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정 의견을 작성하여 공유하는 것은 미얀마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 그 동안 한국의 법률가들은 미얀마 난민, 미얀마 민주화 활동가들에 대하여 한국 내에서의 '난민' 지위 신청 등 법률지원을 해왔고, 현재 미얀마 정치상황의 변화로 한국의 법률가들이 난민 지원을 넘어서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확립, 인권문제의 제기 등을 통하여 기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것이다.

· 이미 관심 있는 법률가들은 미얀마 현지방문을 다녀오는 등 수 개월간에 걸친 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2008년 미얀마 헌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에 대한 법률가 의견을 준비 중이고, 이를 미얀마 법률가와 활동가들과 공동으로 “2008. 미얀마 헌법” 개정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미얀마 헌법개정에 실질적 의견개진과 양국 간 민주주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내 용

- 명칭: '2008 미얀마 헌법' 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 일시: 2014. 2. 19.(수) 오후 1시 30분 ~ 5시 30분
- 장소: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 주최: 대한변호사협회
- 주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프로그램

| 시 간 | | 세 부 내 용 | |
|-----|-------------|---|-------------------------------------|
| 1 | 13:30~13:50 | Opening Session | 사회: 김병주 변호사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 | | 환영사: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 |
| 2 | 13:50~14:40 | Plenary Session | 좌장: 장영석 변호사(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 위) |
| | | Keynote Speech 1 : 미얀마 헌법과 민주주의 운동의 역사 (U Kyee Myint 미얀마 변호사, Myanmar Lawyers Network 회 장) | |
| | | Keynote Speech 2: 한국 민주화 경험을 통해 본 미얀마 헌법 개정의 방향과 과제 (성상희 변호사, 민변 아시아인권팀장) | |

| | | | |
|------------------------|-------------|--|-------------------------|
| 3 | 14:40~15:30 | Session 1 | 좌장: 김자연 변호사(민변 국제연대위) |
| | | 발제 : 미얀마 2008 헌법의 통치구조에서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천운석 변호사, 민변 국제연대위) | |
| | | 토론(1) : U Kye Myint(미얀마 변호사, Myanmar Lawyers Network 회장) | |
| | | 토론(2) :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
| | | 토론(3) : 내툰나잉 지부장 (버마 NLD 한국지부) | |
| 4 | 15:30~16:00 | Tea Break | |
| 5 | 16:00~17:00 | Session 2 | 좌장: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 | | 발제 1. 기본권 분야에서 미얀마 2008 헌법의 문제점과 개선안 (김기남 미국변호사) | |
| | | 발제 2. 미얀마 2008 헌법하의 기본권제한과 민주주의에 대한 영향 (Zaw Min Hlaing, 미얀마 변호사, Burma Lawyers Network 회원) | |
| | | 토론(1): 서기호 국회의원(정의당) | |
| | | 토론(2): 김병주 변호사(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
| 토론(3) : 나현필 차장(국제민주연대) | | | |
| 6 | 17:00~17:30 | Session 3 | 좌장: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 | | 종합토론: 발표자 및 토론자 | |
| 7 | 17:30 | 폐회 | |

3. [‘미얀마 법률가 초청 한국 NGO 간담회’]

- 취지: 미얀마 현지 법률가들, 버마NLD 한국지부 관계자들과 미얀마인권이슈에 관심이 있는 국내 인권시민단체들과의 간담회를 가지고 이를 통해 미얀마인권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의 연대를 증진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함
- 일시: 2014. 2. 20.(목) 14시~17시
- 장소: 미정(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 섭외중)
- 참가방법: 간담회를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간담회 취지

설명하고 참여여부 확인함 민변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일정 조율하여 간담회 여부
회신함

- 참석자(예상): 국내 미얀마인권연대 활동을 하거나 미얀마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들,
약 25명 내외

4. 문의

- 민변 국제연대위 이동화 (프로그램 전체, dhlee@minbyun.or.kr 010-9947-9920)
- 대한변협 인권과 임혜령 (국제심포지엄 관련, hello@koreanbar.or.kr 02-2087-7733)

첨부 2. 초청 미얀마법률가 약력

Mr. U Kyee Myint(우찌민)

- Myanmar Lawyers Network의 대표이자 변호사
- 오랫동안 걸쳐 정치 운동, 학생 운동, 민주주의 운동에 참여

U Kyee Myint씨는 네윈 장군에 의해 이끌어졌던 군사정권에 대한 도전이었던 1962년 Rangoon대 학생 운동에 참가하였습니다. 1974년 노동조합운동(trade union movement)에 참여한 뒤에 수감되었고, 1980년에는 국가보호법 제10조 (A)항에 따라 2년간 수감되어있었습니다. 이후에는 다른 활동가들과 함께 미얀마 8888항쟁의 과정에서 임시정부를 설립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LDP(League for Democracy and Peace)의 CEC member로 1년간 있다가 법조계에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08 헌법과 2010 총선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였습니다.

- 현재는 활동가와 인권 운동 피해자들을 위한 옹호 활동을 주로 함.

Mr. Zaw Min Hlaing(조민라잉)

- Myanmar Lawyers Network의 회원이자 변호사
- 특히 사회적 약자(poor Parties)를 변론하는 활동을 함
- 2006~2007, Yangon Lawyers' association에서 변호사로 활동, 사회적 약자(poor Parties)를 위한 활동을 주로 함.
- 2007~2012, 미얀마 MRTV4(Myanmar Radio and Television) 방송에서 기사 편집, 법률 번역, 프로그램 제작 등의 활동을 함.